News p/5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제322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기성용 '올해의 선수' 선정



이마트 에브리데이 흑석점에서 20일 '왕창 싼데이'라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신선식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흑석시장 상인들이 이마트를 의식해 전단지를 확인하며 상품 가격을 더 낮추거나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다.

공포의 이마트 전단지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 이마트에브리데이 흑석점이 입점해 있는 흑석시장 상가 건물.

이마트 에브리데이, 야채·과일 안 판다더니…
흑석시장 상인들 할인 전단지 확인하며 힘겨운 장사

창간 13주년 相生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단지가 나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우리 가게랑 겹치는 상품 가격부터 확인해요. 매번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에서 20년째 채소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 김모씨(50)는 매주 수요일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흑석점 광고 전단지를 확인한다. 전단지에 나온 채소 할인 상품 가격에 맞춰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0월 전통시장과 상생하겠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가 시장 안에 있거나 시장과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점포 등에서 전통시장과 품목 경쟁을 하는 과일·채소·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지난 20일 기자가 찾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흑석점에서는 '왕창 싼데이'라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과일·채소·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단지에 나오는 대표적인 미끼 상품이다. 20~26일까지 할인되는 신선식품으로는 나들이용 모둠쌈·오이맛고추·애호박·토마토 등의 채소, 사과·참외·수박 등의 과일이 대표적이다. 수산물로는 오징어와 동태가 할인 품목으로 나와 있었다.

가격을 살펴보니 채소의 경우 △상추 1봉 1780원 △깻잎 1봉 1380원 △오이맛고추 300g 2480원 △인큐 애호박 1개 990원 △양상추(소) 1480원 등이다. 과일 가격은 △사과(소) 5개 7980원 △배(중) 4개 8480원 △참외(중) 5개 9900원 △수박이 7kg 1만5800원에 판매됐다. 수산물은 △오징어(중) 1마리 750원 △동태(중) 1마리 1900원 등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흑석점 입구 앞 흑석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은 이마트를 의식해 가격이 더 낮거나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전단지를 확인하며 상품 가격을 맞추고 있는 것.

상추와 깻잎은 1봉 1000원, 오이맛고추는 400g 2000원, 애호박(상)은 3개 2000원 등이다. 과일은 사과(소) 6개 5000원, 배(중) 1개 2500원, 참외(중) 5개 5000원, 수박 8kg 1만5000원이었다. 오징어(중)는 3마리에 2000원, 동태(중) 3마리 3000원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흑석시장 상인들은 제살 깎아먹기식의 운영이 언제까지 가능할 지 한숨을 내쉰다.

시장 한 상인은 "이마트가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매주 전단지를 확인하며 가격을 맞추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이렇게 버티고 살다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규모 단위로 구매하는 유통업체를 우리 같은 상인들이 어떻게 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미국 '사드 무용론' 무시… 사드 本色 시험대

중국 감시용, 미 본토 방어용, 미 군부·업체 배불리기용 등 의혹 난무

미국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사드(THAAD) 무용론'을 무시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무력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사드 도입을 밀어 붙인다면 사드의 군사적 효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그 동안 사드의 본질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도 해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사드의 배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감시용, 미 본토 방어용, 미 군부와 방산업체 배불리기용 등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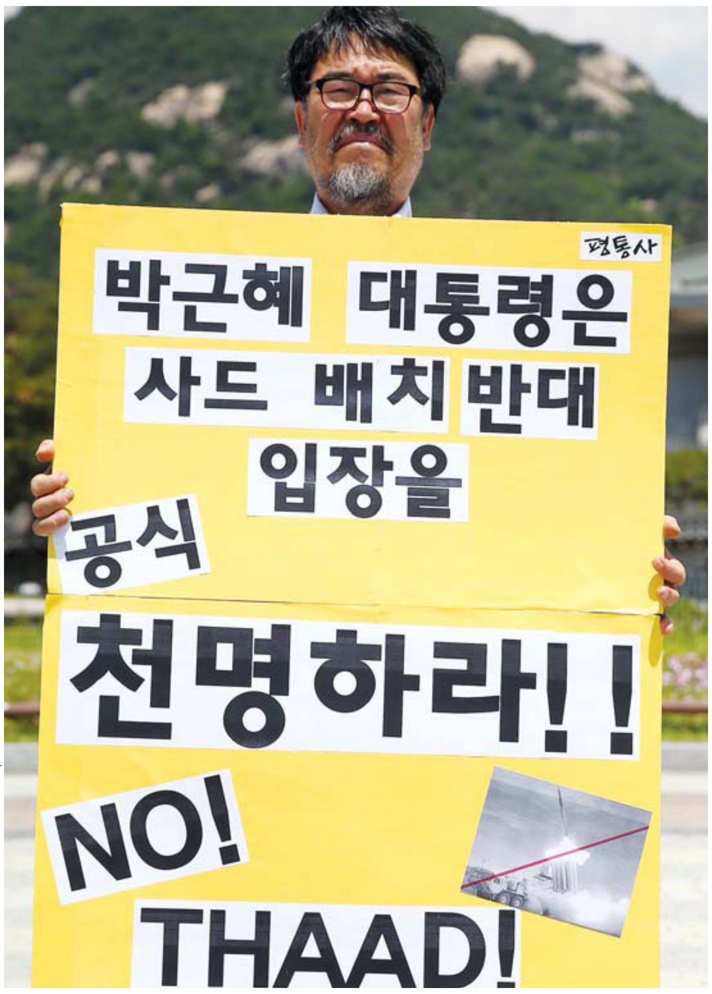
중국 감시용이란 주장은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 기지 동향이 24시간 미군 감시체제에 노출된다는 우려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이미 일본에 비슷한 사양의 레이더가 2기, 대만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실제로는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지난 3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통합 미사일 방어를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로 언급, 미사일방어가 미 국방부의 최고 관심사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떠나서 미 군부의 군사비 축소를 막고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문제제기도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 사드는 국제적으로 미 군부와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무기체계라는 비판이 많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전략무기를 보유한 핵심 부대로서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 사드 논의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미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주한미군이다.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2개 포대를 배치하면 남한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SLBM 위협에 무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미국이 넘어야할 산이다. 미국이 이 산을 넘지 못한다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본질이 미 본토 방어용이나 미 군부 등의 이해를 반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이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통사는 "박근혜정부가 한중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 위협을 가중시키는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부패하고 반인권적인 최차규 총장은 물러나야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군 출신 예비군 /연합뉴스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에 그쳐

국방부는 21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총장을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으나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량범위 내인 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감사결과다.

최 총장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쯤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았으며, 수의장교가 1회 왕진해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330만년전 석기 발견… 뒤집힌 인류사

아프리카 케냐에서 330만년 전의 인류가 사용한 석기가 발견됐다. 인류사를 뒤집는 발견으로 평가된다. 최초로 도구를 사용한 인류인 호모 하빌리스는 280만년 전부터 150만년 전 사이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도구를 사용한 인류가 존재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소니아 아망 미 뉴욕 스토니브룩대 인류학 교수 등 연구팀은 과학전문저널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케냐 북서부 투르카나 호수 인근에서 330만년 전 인류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 149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전 가장 오래된 석기는 260만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석기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달리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초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라는 게 이제까지의 정설이었다.

아망은 "호모 하빌리스 시대 이전의 석기가 발견돼 기존의 이론이 뒤집혔다"며 "대뇌피질과 소뇌의 팽창과 척수의 변화가 330만년보다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케냔트로푸스 플라티오프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루시)가 이 석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구글지도에 '깜둥이집' 치니 백악관 나와

인터넷 구글지도에서 미국 워싱턴DC를 연 뒤 검색창에 '깜둥이의 집'(nigger house)이나 '깜둥이의 왕'(nigger king)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백악관이 뜨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저녁 수차례 인터넷에서 시험한 결과 수정되지 않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이를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USA투데이도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다. 구글지도의 검색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하인 셈이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 중인 오바마 대통령. /연합뉴스

논란이 일자 구글 측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부적절한 검색 결과가 나왔다. 모욕감을 느낀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문제점을 고치는 중이라고 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글지도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 행태를 폭로한 뒤 전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은신처로 백악관을 연계했다. 또 안드로이드의 마스코트인 안드로보이가 애플 로고에 소변을 보는 그림이 구글지도에 표시되기도 했다.

/송병형기자


황교안(58)


최경환(60)


황우여(67)


이병기(68)

연공 파괴… 잘 될까?

아래로 연공서열 높은 실세 줄줄이… 결국 최경환·황우여 사퇴 전제?

58세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21일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통솔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이어 내각서열 2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67세이기 때문이다. 두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으로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실세이기까지 하다. 한술 더 떠 황 부총리는 황 내정자의 법조계 선배다. 연공서열의 파괴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68세로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이다.

내각에서 황 내정자보다 어린 장관이 홍용표(51) 통일부 장관과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둘 뿐이란 점은 부차적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업무도 부총리는 경제분야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처럼 (신임 총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우려는 좀 더 노골적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료들의 나이대 역시 고려 대상"이라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내각을 통솔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주 부대끼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말도 나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로서 그것도 공안검사로서 수 십 년을 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매우 익숙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나타낸 말이지만 부처 간 조정업무라는 총리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상명하복과 국정조정은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연공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복안이 엿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런 (서열 역전 문제)점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최 부총리, 황 부총리 두 분은 (내년 4월)총선에 출마할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 공무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서이·이정경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40년지기 이종걸 "황교안은 착한 친구지만 김기춘 아바타"

황교안 총리 내정자와 경기고 시절 같은 반으로 40년지기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지명했다"며 "(황 내정자는) 과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낸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내정자는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자기성찰적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친구"라고 했다. /연합뉴스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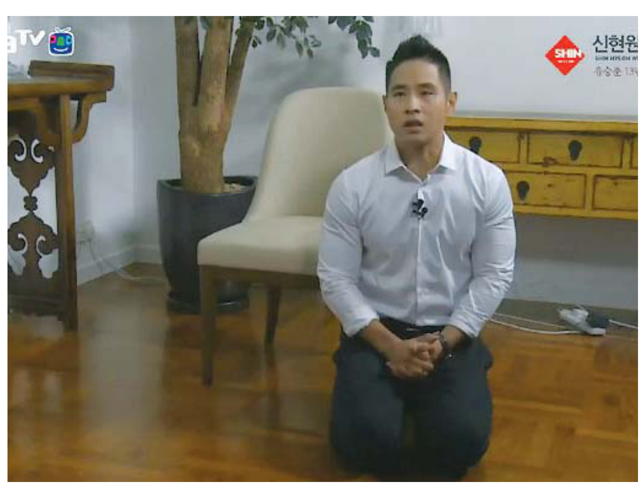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에 대해 네티즌들뿐 아니라 국회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3년만의 최초 고백'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데에 대한 사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헌법을 기만한 유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탈영병은)45세까진 정상생활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탈영병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이지만 병역을 기피한 유씨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 달리 가족과 미국에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엔 어떤 대가도 안 치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국방위원인 진성준 의원 역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저는 이른바 유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jklijkl@


심경 밝히는 유승준. /연합뉴스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쓰도록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이기자



모판들고 구호 외치는 농민 21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밥쌀용 쌀 수입반대 상경집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피켓이 달린 모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명동 사채왕' 뒷돈 前판사 징역

法 "법치주의 훼손"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고 뼈아프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씨의 사건을 검색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관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겠다는 욕심으로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버리고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현직 판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기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연미란기자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

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김황식(67·사진) 전 국무총리가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않도록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미란기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스즈키 고발

"법적 대응… 재발 없도록 경고"

변호사 "日정부 대상 조정 신청, 날짜 잡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0)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이 곳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1일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이옥선 할머니는 고소장을 들고 안 소장과 법률대리인 김강원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까지 동행했다.

아울러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들고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소녀상이 들어있던 투명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의미의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인쇄물까지 들어 있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법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 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별이 된 운동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과 시민이 희망과 평화 등 메시지를 그려넣은 '희망의 운동화'가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이날부터 23일까지 '2015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를 개최, 이 행사를 통해 모아진 희망의 운동화를 8월 몽골의 빈곤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법 "이혼소송 판결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금액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1억1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항소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려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

'成리스트' 남은인물 6명 의혹 규명 논의중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측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다"며 "수사 보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실무적인 문제나 공판 일정 등을 향후 수사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대체로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2012년 대선 기간에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한 의혹 등을 향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선자금 의혹의 경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리스트 속 인물 3명이 관련돼 있다.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2007년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의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를 넘겼을 공산이 커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리스트 속 남은 1명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메모에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대선자금과 특사 의혹을 면밀히 수사한 뒤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다음 달 초·중순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최장기 장관에 총리 후보까지… 황교안 신임 재확인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이 재조명 되고 있다. 황 장관은 30년간 검찰에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공안 수사 경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약점으로 작용해 여러차례 승진에서 빠지는 아픔을 맛봤다. 그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승진 대열에 오르지 못했다.

2006년 검찰 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07년에도 검사장에 오르지 못했다. 황 장관은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가 2년 만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멤버였던 그가 최장기 장관에 이어 총리 후보자 자리까지 오르면서 신임을 재확인했다.

안팎에선 지난 2년3개월동안 법무행정을 총괄, 단호한 개혁 추진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최근 성완종 리스트 의혹까지 황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원칙에 입각해 답변했다.

원론적 답변으로 질문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장관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쪽에서 특기를 쌓았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최지영 씨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상명대, 중국·베트남 유학생들 음식축제 열어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학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기간 중 상명대에 재학중인 중국·베트남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음식축제를 열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고향의 음식을 상명대에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갖게된 만큼 축제기간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명대

고성장·안정적 지배구조… 銀, 베트남에 러브콜

은행장들, 인허가 요청 등 현지 기반확대 주력

#지난 18일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였다. 이날 모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부반닝(Vu Van Ninh) 베트남 경제·금융 부총리와의 오찬을 위해 마련됐다. 당초 임 위원장은 부총리와 단독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베트남 진출에 관심있는 금융사들의 러브콜에 오찬행사로 변경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장들은 베트남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방한 중인 부반닝 부총리를 만나기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지점을 늘리고 인허가를 요청하는 등 베트남 현지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매년 5~6%대를 기록하는 경제성장률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꾸준히 늘어나는 국내기업의 진출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93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금융권의 입맛을 더욱 돋구고 있는 셈이다.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9일 농협은행을 방문한 부반닝 부총리를 만나 농업금융을 소개했다.

이날 김행장은 농협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현지 지역사회와 농업·농촌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현지인가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베트남 하노이 지점 개설을 위해 지난해 9월 베트남 중앙은행에 현지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김 행장은 특히 농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농협은행만의 특화된 베트남 내 사업 전개 방향도 전달했다.

아울러 현지진출 한국 농식품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 농업관련 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피력했다.

KB국민은행 역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지점 전환에 착수했다.

지난 2011년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소를 개설한 부산은행은 올해 하반기중 지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점 개점을 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 곳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부반닝(Vu Van Ninh) 베트남 경제·금융 부총리, 금융CEO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지난 7일 신한은행은 베트남에 12번째 채널인 하이퐁지점을 개점했다. 하이퐁은 하노이로부터 동쪽 120km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베트남 제 1의 항구도시다.

앞서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법인 형태 외국계 은행 중 총대출과 당기순이익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작년 11월 외국계 은행 최초로 4개 영업점을 동시 인가받았다.

같은 날 하나금융그룹도 베트남 호치민에 지점을 열고 아시아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호치민지점은 지난 2007년 호치민에 사무소로 진출한 이후 8년 만에 개설된 베트남 내 지점이다.

이는 2011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정부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으로 외국계 은행들의 신규 진출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개설된 외국계은행 지점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호치민지점 개점을 계기로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잇는 '아시안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199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진출해 16년째 활발히 영업중인 외환은행 하노이지점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남북 양대 주요 도시간 영업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호치민시에 본점을 둔 현지 민영상업은행인 'HD Bank'와 포괄적 업무협약도 맺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오래 안 쓴 소액계좌, 자동 거래중지

앞으로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 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 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데 이어 금액 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신한은행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육 실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진부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육 – 우리 학교에 신기한 은행이 왔어요'. 참가 학생들과 직원들이 신한은행 이동점포인 뱅버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흥국생명 배구단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흥국생명은 21일 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가 대한적십자사 산하 은평·서대문 적십자사 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일 흥국생명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진행됐다.

이날 흥국생명 배구단 20여명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굽는 등 빵 만드는 모든 공정에 직접 참여했다.

빵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달됐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박미희 감독은 "어르신들께서 배구단이 정성으로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나눔을 실천하는 흥국생명 배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교통사고 현대라이프에 맡기세요"

대중교통사고보험 등 2종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을 내놨다.

먼저 '운전자&탑승자교통사고보험'은 직접 차량을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차량 탑승 중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와 사망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망 시 5000만원, 일상생활에서 재해로 인한 골절 수술 시에는 회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매월 낼 필요 없이 여자 3만원, 남자 6만원을 단 한번만 결제하면 5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20~60세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보험소비자에게는 '대중교통사고보험'이 유용하다. 이 상품은 버스·지하철·택시뿐만 아니라 기차·비행기·선박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사고도 집중해 보장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유용하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 시 1억원, 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재해로 인한 골절 수술 시에도 회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60세라면 누가나 가입할 수 있고, 여자 3만원 남자 5만원으로 모든 연령대의 보험료가 동일하다.

이들 상품은 현대라이프 ZERO 웹사이트(www.zero.co.kr) 또는 ZERO 상담센터(1544-2900)에서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옥션, GS SHOP, 롯데닷컴, 현대Hmall, 이마트몰)과 이마트(가양, 용산, 월계, 자양, 죽전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GS건설·삼성ENG, 안정세 속 수주 양극화

GS건설
1분기 영업익 흑자전환
해외수주 꾸준한 실적

삼성ENG
6분기 연속 흑자에도
수주 잔고 급감 '불안'



GS건설 본사인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왼쪽)과 삼성엔지니어링 강동 신사옥. /각사 제공

2년 전 중동발 리스크로 1조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다만 GS건설은 해외수주 등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는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미래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1분기 각각 200억원과 21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6분기 연속 흑자세를 지속했다.

지난 2013년 GS건설은 9373억원, 1조2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역전타워와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마련했다. 또 선별수주와 해외사업 수행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GS건설은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33억4981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49억1740만 달러)에 이어 2위 기록이다.

또 경북 구미시에 공급한 '문성 파키자이'의 905가구(특별공급 제외)가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되는 등 국내 분양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도곡동 사옥과 삼성동 글라스타워 지분을 매각하고 임직원 특별 격려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체질개선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9본부 3실을 9본부 2실로 축소했고, 정기 인사에서 임원의 20%를 감축했다.

기능 재정비에는 화공 프로포잘팀을 화공 프로포잘 본부로 승격·신설하고 MENA(중동·북아프리카) 사업본부를 화공사업본부에 통합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특히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무산과 저유가에 따른 화공 플랜트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수주잔고 급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올해 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수주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에 불과한 5억483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조77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치다.

업계 관계자는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설사가 1년여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최근 실적은 괄목할 만하다"면서도 "해외수주액 감소와 해외불안요소가 산적한 만큼 앞으로도 실적이 호조를 보일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6월 5만6700가구 분양… 지역별 양극화 뚜렷

6월 신규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2만가구 이상 많은 5만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 물량도 절반 가량이 미달된 상황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국 5만67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물량(3만184가구)보다 2만6527가구 많은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전월 대비 11.5% 감소한 3만432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대치동대치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한 '대치국제SK뷰' 240가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713가구 등 1782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는 '김포푸르지오센트레빌2차' 2458가구 등 국 신규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2만8641가구가 공급된다. 인천도 송도국제도시 '송도더샵센트럴시티' 2610가구 등 총 390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26.8% 감소한 2만238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5월에 이어 세종과 경남에서 대형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과 경남 물량은 각각 4573가구, 3836가구다.

이밖에 ▲부산(3366가구) ▲강원(2349가구) ▲충북(2215가구) ▲충남(1873가구) ▲대구(1126가구) ▲제주(759가구) ▲경북(540가구) ▲울산(520가구) ▲광주(506가구) ▲전남(420가구) ▲전북(302가구) 순이다.

/김형석기자



대우건설, 은평천사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아동복지시설인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발전사업본부, HSE-Q(Health Safety Enviorment-Quality)실, RM(Risk Management)실 임직원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설 환경 정화와 영유아 돌보기, 만들기 수업 등 노력봉사를 했다. /대우건설 제공

금호산업, 구미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 분양

59~84㎡, 237가구
시청·백화점·터미널 등
각종 편의시설 인접

금호산업 건설사업부가 경북 구미 형곡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13~20층, 6개동, 전용면적 59~114㎡, 전체 486가구 규모다. 이 중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59~84㎡, 237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평균 54대 1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됐다. 특히 84㎡A 타입은 16가구 모집에 1676명이 몰리며 104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구미시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아파트가 들어선 형곡동은 구미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지난 2005년 '푸르지오 캐슬'이 분양된 이후 10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구미시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시설이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다. 시청 주변 상권과 동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구미역, 구미IC 등의 교통망도 갖췄다.

무엇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는 물론,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또 구미시립중앙도서관과도 가까워 구미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다.

단지는 구미시 최적의 입지에 오랜 만에 공급되는 만큼, 숲속도서관, 키즈카페, 테마정원, 산책로 등의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주거 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숲과 바람, 물을 테마로 하는 플레이존(Play Zone)을 형성해 자연·사람·삶이 어우러진 어울림단지를 계획했다. 여기에 데크를 활용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미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 조감도.

세대 내에는 저방사율 유리 등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사용했다. 저방사율 유리는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금속박막을 코팅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다. 여름철에는 외부의 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실내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문의: 054-456-8050

/박선옥기자

영업 평가, 철저히 '고객 중심' 체질 개선

창간 13주년 相生



삼성증권(대표 윤용암)이 고객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우선 프라이빗뱅커(PB)와 지점 등 영업조직의 평가보상제도를 철저히 고객수익률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객수익률 기준의 '건전매출' 개념을 도입해 고객 자산의 손실이 많거나 잦은 매매로 고마진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자산에 투자가 편중된 경우 등은 해당 영업조직의 실적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각 영업조직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에도 매출대신 '건전매출'을 반영한다.

삼성증권
'건전 매출' 개념 도입
종합 컨설팅 중심 개편
고객수익률 제고 총력

따라서 직접평가와 간접평가 비중이 45%까지 늘어나 영업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영업방식도 판매시 수수료를 받는 단품 판매 위주에서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기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상품을 추천한 뒤 정기적인 수수료를 받는 포트폴리오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한다.

포트폴리오 컨설팅 영업은 선진형 자산관리법으로 분산투자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이 용이하다. 또 선취 수수료 대신 관리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욱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삼성증권은 이에 맞춰 고객 컨설팅 역량이 뛰어난 웰스매니저(WM) 직군을 신설해 고객관리 혁신을 이끌게 하고 11개 모델 포트폴리오를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영업에 적용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내외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상품과 투자정보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며 "매주 전사 투자전략협의체를 열어 추천 상품과 모델포트폴리오를 엄선하고 그 성과는 본사조직 평가에 철저히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과 제휴를 맺고 리서치 정보공유, 고객·PB 간 교류, 상품 교차판매, IB 부문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달에는 '중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초청 2015 중국 투자 컨퍼런스'도 열린다"며 "삼성증권은 앞으로도 후강퉁과 관련된 투자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리서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휠라코리아, 하반기 실적 반등 '장밋빛'

내년 자회사 상장 호재

'휠라코리아'가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 각종 호재로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휠라코리아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15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277억원을 기록해 예상치와 유사했다. 국내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34억원 감소해 연결 영업이익 소폭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내 부문에서 외부 컨설팅 관련 비용 14억원, 미주 법인 사옥 이전 등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 1분기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였던 지난 1분기와 유사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분기 실적은 휠라 브랜드의 이익 창출력을 확인하고 지난해 4분기 140억원 수준의 영업 실적 쇼크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는 휠라 브랜드의 회복과 내년 상장을 앞둔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상장을 앞둔 자회사 아쿠쉬네트(Acushnet)에 대한 지분율은 33%(상장 시점 기준)이며 최소 지분 가치는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휠라 코리아는 지난 2011년 컨소시엄을 통해 세계 1위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보유한 연 매출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의 아쿠쉬네트 컴퍼니를 인수했다.

박 연구원은 "3분기 이후 상장 주관사 선정 등 상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상장 모멘텀을 볼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미국 법인의 경우 2분기에도 20% 이상의 고성장세가 예상된다"면서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와 같은 1954억원이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코스피 16.73p 하락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6.73p(0.78%) 내린 2122.81에 거래를 마감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證, 달러 투자 ELS 3종 출시

대신증권은 S&P500, HSCEI, EURO STOXX50, 오라클(Oracle),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신[Balance] 달러 ELS 3종의 상품을 22일 하루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ELS 812호는 만기가 173일인 안정형(Stability) 상품이다. S&P500 지수가 하루 동안 10%를 초과해 하락하지 않으면 연 2.8%의 수익을 제공한다.

ELS 813호는 S&P500,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짜리 노 녹인(Knock-in)상품이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6, 12, 18, 24, 30개월), 55%(만기평가일) 이상인 경우 연 3%의 수익을 제공한다.

100조클럽 ELS 19호는 오라클과 길리어드사이언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짜리 노 녹인(Knock-in)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6,12 18, 24, 30개월),



60%(만기평가일) 이상인 경우 세전 연 4.3%의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 청약단위는 1000달러(USD)고, 발행일은 오는 22일이다. 판매규모는 총 996만9000달러(USD)며 상품가입은 대신증권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김보배기자 bobae@

"하반기 코스피 1850~2200p"

KDB대우證 '증시포럼'
국제 경제 화두 '탈 디플레'
유가 반등… 금리 인상 전망

KDB대우증권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KDB대우증시포럼'에서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로 1850~2200p를 제시했다.

KDB대우증권은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탈(脫)디플레'를 제시했다.

선진국 경기의 순환적 회복과 유가 반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완만히 상승하면서 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KDB대우증권 김학균 투자분석부장은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며 "과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곤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는 채권과 주식 가격이 뚜렷한 동조화를 나타내왔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ECB(유럽중앙은행)와 FRB(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금리 상승 속도를 얼마나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KDB대우증권은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고, 분기별로는 3분기까지경기 확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예상 등락 범위는 1.7~2.1%로 전망했고, 국제 유가(WTI)는 배럴당 60~70 달러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KDB대우증권은 하반기 투자유망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CJ E&M, SK C&C, 제일모직, 고려아연, 한샘, 유한양행, 한국항공우주 등 9개 종목을 제시했다. /김민지기자

유안타證 명동지점 내일 中 투자설명회

유안타증권 명동지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을지로본사 대강당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먼저 '중국주식투자, 왜 유안타증권인가?'에 대해 용상수 대리가 진행한다. 이어 '중국주식 살 때인가? 팔 때인가?'를 주제로 중국투자 전문가 김용환씨가 강연한다. 설명회 이후 참가한 개인투자자들과 질의 응답과 상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명동지점(02-752-8822)에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기자

삼성전자, 고전하는 TV사업 몸집 줄인다

동남아 생산라인 물량 축소·제조 거점 조정

삼성전자가 TV 사업의 몸집을 줄이고 있다.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점유율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친 가운데 효율성과 사업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동남아시아 TV 생산라인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베트남에 들어설 복합가전단지에서 동남아지역의 TV 물량 상당부문을 소화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한국 수원과 중국, 멕시코, 브라질, 헝가리 등 세계 각 지역에서 TV를 생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생산 거점은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이다.

전자업계는 삼성전자의 TV 생산라인 조정 작업을 원가 절감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TV 생산라인의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TV 생산가능수량은 1057만대다. 지난해 1분기(1347만대)보다 21.5%가 떨어졌다. 그러나 TV 생산라인 가동률은 전년 동기(87%) 대비 3.9%포인트 올라간 90.9%를 기록했다. 생산물량을 줄였지만 효율성은 향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에서 보도된 (TV)공장 폐쇄지역을 태국으로 특정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물량을 줄이고 제조 거점을 조정하는 전략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생산거점 효율화가 이뤄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TV사업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맡고 있는 소비자가전(CE) 부문은 14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CE 부문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6년 이후 9년만이다. TV 사업의 적자만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전시된 삼성전자의 SUHD TV. /삼성전자 제공

글로벌시장 점유율도 하락세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TV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27.1%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보다 2.2%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초고해상도(UHD)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정체 상태다. 1분기에 삼성전자는 수량기준 점유율 24.3%로 전분기(26.9%) 대비 2.6%포인트가 빠졌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0년 사이 올해 1분기가 (삼성전자 TV 사업)시그널이 가장 좋지 않다. UHD TV 시장에서도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며 "최대 성수기인 4분기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물량으로 경쟁하는 삼성전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에어컨 생산라인 "바쁘다 바빠" 20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외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모델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스마트에어컨 Q9000'은 3개의 원형 바람문과 슬림한 실루엣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물론 절전·냉방·청정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 제공.

"뉴 아우디 A6·A7 올 1만대 팔 것"

뉴 아우디 출시 간담회
디젤 모델 '유로6' 충족
190~320마력 성능 발휘

"새롭게 출시된 뉴 A6 모델은 8000대, 뉴 A7 모델은 2000대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촉 또한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21일 '뉴 아우디 A6', '뉴 아우디 A7'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아우디는 기존 모델을 변경한 제품의 강력해진 파워트레인과 새롭게 바뀐 디자인 등을 선보였다.

타머 사장은 "올해 아우디는 전 모델에 대해 3만대의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출시된 디젤 엔진은 유로6기준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했다.

새로운 A6·A7의 부분 변경 모델은 차량 컨셉에 따라 컴포트, 프리미엄, 스포트 등 3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격은 A6가 6250만~9400만원, A7은 7800만~1억410만원에 책정됐다.



아우디코리아는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21일 '뉴 아우디 A6', '뉴 아우디 A7'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진영기자 son@

A6는 4종류의 TDI 디젤 엔진과 3종류의 TFSI 가솔린 엔진 등 총 7가지가 소개됐다. 디젤 모델은 모두 유로6 기준을 만족하며 190마력부터 32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A6 모든 모델에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라이트와 멀티미디어인터스페이스(MMI)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A6 고성능 모델인 S6는 V8 트윈 터보차저를 장착한 4.0 TFSI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S6는 4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해 정지상태에서 100km/h(제로백)까지 4.5초가 걸린다. 가격은 1억2410만원이다.

A7은 유로6를 충족하는 2종류의 TDI 디젤, 4종류의 TFSI 가솔린 모델 총 6개로 구성됐다.

A7 55 TDI 콰트로는 최고출력이 320마력이다. A7 50 TDI 콰트로는 기존 보다 27마력이 향상돼 272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용기기자 yonggi@

"송도서 RC카 몰아 보세요"

현대차, 23~24일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

현대자동차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 2015'이 23~24일 송도에서 열린다.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2차전을 중심으로 어른, 아이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에쿠스 전동차, WRC 출전 차량 전시, RC카 체험과 교통 안전 교실, 주니어 공학 교실, 자동차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도 열린다.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와 현대차 브랜드 홈페이지(brand.hyundai.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 효성, 글로벌 시장 첫 선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세계 3대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2015'에 참가해 친환경 신소재 '폴리케톤'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21일 조 부사장은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내구성·내화학성 등이 탁월한 폴리케톤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2012년 울산에 연산 1000t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폴리케톤을 생산 중이며, 연산 5만t 규모의 폴리케톤 상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양소리기자

LG전자, 전국 백화점서 'LG TV 로드쇼'

LG전자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LG TV 로드쇼'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 TV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LG TV 로드쇼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8~14일)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목동점(18~25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21~25일), 롯데백화점 잠실점(21~2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22~28일), 롯데백화점 본점(29일~6월 2일)에서 열린다.

다음 달부터는 울산,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지역 백화점 7곳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j71@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이 77형 올레드TV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밴드 데이터로 갈아타면 가족할인율 ↓

소비자 119

SKT 데이터 요금제 함정

'기본료 선할인' 유혹 후 기존 혜택 슬그머니 축소 누리꾼·가입자 불만 폭주

기본요금제의 월정액 최소 10% ~ 최대 50%할인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된 분들의 이동전화 가입기간 합산기간에 따라 기본요금제 월정액을 할인 해 드리며, T끼리 온가족 할인에 묶이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가족들의 이동전화 가입 합산기간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동전화 기본요금제의 월정액 할인	10%	20%	30%	50%
band 데이터 요금제의 월정액 할인	0%		10%	30%

'T온가족할인'의 가입기간 합산기간 당 할인율.

이동3사가 연이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신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틈을 타 기존 할인혜택 등을 축소하고 있어 논란이다.

19일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SK텔레콤은 출시 하루 만에 가입자 15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새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기존에 특정 가입자를 위한 혜택 서비스를 축소 시켰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T끼리 온가족할인 할인율을 낮췄다. T끼리 온가족할인은 SK텔레콤에 가입한 2명이상 가족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0년 미만 10%, 20년 미만 20%, 30년 미만 30%, 30년 이상 50% 할인이 된다. 최대 50%의 할인 혜택 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선호되는 서비스다.

그런데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선 합산기간이 30년 이상일 때 50%에서 30%로, 20년 이상일 때 30%에서 10%로, 그 이하는 0%로 혜택을 줄였다.

T끼리 온가족할인 제도로 상당수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었던 가입자들에게는 이번 할인률 축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 기본 제공량이 비슷한 기존 요금제 '전국민 무한 85'(8만5000원)와 새로 출시된 '밴드 데이터 61'(6만1000원)을 비교해보니 2년 약정할인과 온가족할인으로 최대한 요금 할인을 받았을 때 데이터 요금제가오히려 200원 비싸고 데이터용량도 줄어든다.

전국민 무한 85와 밴드 데이터61은 제공량이 거의 비슷하나 85 요금제가 기본 데이터 1GB 더 많다. 85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T끼리 온가족 30년 이상으로 50% 할인을 받으면 기본료를 반토막 가격인 4만 2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데이터 61이 T끼리 온가족 30년 이상이면 30% 할인으로 4만 2700원이다. 밴드 데이터 61로 옮기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200원을 더 내지만 기본 데이터는 1GB 줄게 된다.

또한 다른 선택가능한 할인 정책인 2년 약정을 받으면 기본료에 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어 6만5000원으로 무한 85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61 요금제와는 4000원 차이난다.

할인 축소에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가입을 고민하던 SK텔레콤 고객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을 5년 째 이용하고 있는 한지선(가명)씨는 "온가족할인을 받으려 일부러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꿨는데 이런 혜택 축소는 말도 안된다"며 "언뜻 광고하는 문구에 이끌려 이번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기존보다도 더 안좋아 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 이승민(가명)씨는 "온가족 할인은 SKT에서 회사 이동없이 장기고객으로 잡아두려 만든 일종의 술수였던 것으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요금제에서는 약정할인과 T끼리 온가족할인이 중복할인 혜택이 없었지만 기본료 선할인을 내걸고 출시한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온가족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중복 할인을 해주는 셈"이라며 "일부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더라도 온가족할인의 할인률 변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에서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는 통신·IT 전문매체 텔레콤 아시아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아시아 지역 통신사업자 중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SK텔레콤이 수상한 최우수 통신 혁신 프로젝트상은 통신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프로젝트에 수여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최대 300M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 3밴드 LTE-A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1분기에 2.1GHz 기지국 2.6만 식을 구축하고 전국에 설치된 중계기를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오는 8월까지 5000식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 국내 최대 3밴드 LTE-A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이 더욱 넓은 장소에서 최고의 LTE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서울 동작구 한국광물자원공사 신대방 사옥 본관 전경. /광물자원공사 제공

광물公 신대방사옥, 역사속으로…

내달 강원도 원주로 이전 후 70년대 산업화 명소 허물고 고층 주상복합건물 들어서

40년 세월이 담긴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 서울 신대방사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광물공사가 내달 22~29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다. 공사가 떠나면 이 사옥에는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떠나는 공사직원들은 하나같이 아쉬움을 남겼다. 공사의 발전사와 함께한 중년의 갈색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에 있는 광물공사 신대방 사옥은 본관과 별관 2개, 기술연구소, 고객지원센터 등이 1만1391㎡의 부지에 방사형으로 늘어서 있다. 본관과 별관 등은 지상 4층 건물로 초고층을 이루는 최근 건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그러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광물자원 공사 관계자는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늘어서 있는 모습이 요즘에 보면 촌스러운 듯 하지만 70~80년대의 역동적 산업화의 기운을 그대로 타고난 명소"라고 귀띔했다.

1974년 1월에 준공된 신대방사옥 본관은 출입증을 대야 열리는 투명유리의 자동문을 제외하곤 역사의 흔적이 담긴 전형적인 옛건물이다. 광물공사의 옛 명칭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시절에 지어진 것이다. 본관 정면으로 좌측 앞에 있는 기술연구소는 1977년 11월에 준공됐다. 본관의 우편에는 야외 휴게쉼터가 자리하고 있다. 햇살 좋은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을 놓고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는 직원들을 볼 수 있었다.

지금보면 촌스러운 건물이지만 이 곳에서 광물공사의 역사가 써졌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업무수행(1978년 3월), 최초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1990년 4월), 최초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체결(2004년 12월) 등 굵직한 사업이 이 사옥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졌으며 추진됐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대방 사옥이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고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에 있어 요즘 트렌드인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역사를 간직한 이런 사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

수입차 고속성장 원동력 된 시승 마케팅

기자 수첩

이 정 필 <산업부 기자>

한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5대 중 1대가 수입차인 시대를 맞았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0년 6.92%에서 지난해 13.9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달 18.12%로 올라섰다.

불과 3년 만에 10대 중 1대도 안되던 상황에서 전체의 20%로 급성장한 셈이다.

이같은 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브랜드별로 특색 있게 기획한 시승행사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다.

지난주 진행된 '뉴 푸조 308 1.6' 미디어 시승행사에서 사측은 전문 드라이버들을 초청해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카레이서 못지않은 운전 실력을 갖춘 기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활 드라이버고 시승 시 도로상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운전을 업으로 삼는 선수가 모는 차에 타보니 가속과 제동, 코너에서의 핸들링 등에서 해당 모델의 성능을 넉넉히 체감할 수 있었다.

또 차를 잘 아는 그들이 옆에서 전하는 설명을 들으니 각종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배가됐다.

이런 세심한 마케팅이 언론에 전달되면 다시 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닐까.

제주에서 3월 열렸던 '더 뉴 인피니티 Q70' 시승 역시 기억에 남는 행사 중 하나다. 당시 시승은 평범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시승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대표이사는 남달랐다.

사람 좋게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그는 연신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많은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소통하려 노력했다.

무조건 "우리 차가 좋다"는 식이 아닌, "시승 때 느낀 장단점을 솔직히 말해 달라"는 자세였다.

자신의 양복상의에 달린 회사로고 뱃지를 기념으로 달라는 후배기자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 건네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던 소탈한 그의 모습이 선명하다.

이후 서울모터쇼에서 그가 안면있는 기자들과 만나면 악수하는 장면이 자주 보였다.

언론도 홍보도 자동차 제작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진정성을 갖고 감성마케팅과 함께 애프터서비스 문제 등을 감추지 않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키쿠치 닛산 대표이사의 경영법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랍다.

'대장균 시리얼' 공판, 동서식품 운명 가른다

대장균 시리얼 재살균 판매… 기업 대표 기소 첫 사례
유죄 선고시 집단소송·불매운동 등 제기 가능성 높아

'대장균 시리얼'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식품위생법 위반)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사진)의 세 번째 공판이 다음 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에서 열린다.

불량식품 유통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근절 대상이어서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광복 대표에 대한 '대장균 시리얼 사건' 관련 공판은 지난 4월 7일, 28일에 이어 다음달 9일과 30일에 잇따라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성희)은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외 5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과,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 진천군의 행정처분 실행 여부도 결정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동서식품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복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집단소송과 불매운동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서식품은 충청북도 진천군 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부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그와 비슷한 균)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살균해 정상제품에 섞어(각 제품마다 10%가량) 판매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간 총 42톤의 시리얼을 이 같은 방법으로 생산·판매했으며 그 판매액수는 약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의 해당 시리얼 제품을 전부 회수해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했지만 판매 시리얼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당시 진심어린 사과문을 게재했고, 해당 제품을 전부 폐기했다. 현재는 공정과정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동서식품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서식품의 경우 판매액수가 많아 법정형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살균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불량식품 유통으로 본다.

중국은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지난 2008년 중국의 '멜라닌 분유 파동' 당시 중국 법원은 제조자·납품자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2013년 '하수구 식용류'를 판매했던 중국인 왕성규는 중국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재산몰수 처벌을 받았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 "선풍기 · 에어컨 준비하셨나요" 21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모델들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내달 10일까지 선풍기와 에어컨을 할인 판매한다. 삼성과 LG 에어컨 중 행사 상품을 5대 카드(신한 · KB국민 · 삼성 · 현대 · 롯데카드)로 결제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
복지제도·임직원카드 출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21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털볼룸에서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동빈 회장과 강석윤 롯데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 계열사 노동조합위원장,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 노사 신뢰와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과 사회공헌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선포식은 노사 신뢰와 협력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 성과로 직원들 분배 몫을 키워 고용조건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원 만족이 생산성 향상,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회사별로 노사 상생 협력은 있었지만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노사가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약속하는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선포식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선포식은 2009년 비전 선포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인이 필요하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신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롯데 노동조합협의회 강석윤 의장은 "노사가 함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 낸 롯데의 창조적 노사문화는 롯데의 역사 속에서 경험과 교훈으로 축적된 우리의 가치이자 신념"이라고 말했다.

밥용 쌀 수입, 국내산 쌀값 하락 부채질

aT, 쌀 1만t 전자입찰
전농연, 규탄대회 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 계획을 밝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1일 전자 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연)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농연은 "올해 쌀 전면 관세화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은 삭제돼 수입 쌀 용도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입찰을 강행했다"며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들의 목을 조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쌀이 넘쳐나고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국내 쌀시장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밥쌀용 쌀 수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것"이라며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쌀 7만7000톤을 추가 격리키로 한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 3만9927원으로 지난해 4만2872원와 비교해 6.9% 하락했다. 쌀 재고량도 4월말 기준 135만톤으로 지난해 89만톤과 비교해 1.5배 가량 많다.

전농연 관계자는 "밥쌀용 쌀 수입은 식량 주권의 문제인 만큼 쌀 수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6월 말 농민대회 개최에 이어 11월께 10만 농민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혼합미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기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중장기적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513%의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쌀 관세율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중에 세계무역기구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이날 쌀 수입 업무를 맡을 업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한다. 수입업자가 정해지면 9~10월께 밥쌀용 쌀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일품진로' 리뉴얼 후 판매 급증… 전년比 162%↑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의 프리미엄 증류식소주인 '일품진로'가 애주가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4월 일품진로 판매량이 17만병을 넘어서며(1상자=375㎖ 6병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6만5000병) 16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9만2000병에서 2014년에는 25만병으로 세배 가깝게 성장했다.



2006년 출시된 일품진로는 참나무통에서 10년 이상 숙성시킨 고품격 소주로, 2013년 7월 제품리뉴얼을 기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소주로의 차별화를 위해 알코올 도수를 23도에서 25도로 높이고 목통숙성의 맛과 향을 최적화했다.

일품진로의 리뉴얼 효과는 판매량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리뉴얼 전 월평균 판매량은 약 6500병이었으나 2013년 7월 리뉴얼 출시 이후 약 3배 가량 증가하며 월평균 2만병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월평균 4만병 이상이 팔리고 있다.

DAESANG 대상주식회사



사탕수수에겐 참 미안한 이야기

사탕수수야, 건강한 땅에서 햇빛 먹고 바람 마시며 자란

네가 **내 원료**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

내 **감칠맛**은 너를 꼬박 **마흔 시간 동안 발효**해서

얻은 맛이라는 것도 말이지. 그래, 생각이라는 걸 쉽게

바꿀 순 없겠지. 하지만 난 믿어. **맛을 위해,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다하다 보면 오해는 조금씩 풀릴 거라고.

더 많은 식탁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발효미원





현대百 "'핫텐도' 크림빵과 'PNB풍년제과' 초코파이 맛 보세요" 21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식품관에서 모델들이 일본 대표 크림빵 브랜드 '핫텐도'의 크림빵과 전주 명물인 'PNB풍년제과'의 초코파이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2위 노스페이스 재고 산더미

업계 유일 사입 방식에도 지난해 재고자산 667억

아웃도어 노스페이스가 매출 1위 자리를 내준데 이어 재고 관리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지난해 재고자산은 667억을 기록했다.

재고자산은 2013년 687억원에서 약 19억원이 줄었지만 2013년에 80억원을 줄였던 데 비하면 감소액은 미미하다.

노스페이스는 백화점·직영점 등을 제외하고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입(仕入)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입은 대리점주가 본사에서 도매가로 물건을 받아갈때 재고 부담까지 떠안는 방식이다. 팔리지 않는 재고도 대리점주들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본사는 부담이 적고 재고 관리에도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노스페이스는 수년째 지켜온 부동의 업계 1위 자리도 지난해 블랙야크에 내줬다. 패딩이 일명 교복으로 통하며 인기를 끌면서다.

지난해 영원아웃도어 영업이익은 542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은 5320억원으로 전년대비 1% 성장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블랙야크의 2014년 매출은 5724억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노스페이스를 제쳤다.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격차가 많이 났던 네파와 K2도 지난해 4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노스페이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업계에선 노스페이스가 사입 구조이기 때문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해 매출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위상이 한풀 꺾였다는 것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4~5년 전만 해도 노스페이스가 독보적이었다면 최근 이를 대체할 만한 신규 브랜드가 많이 진출했고 소비자들도 다양한 스타일의 아웃도어를 찾다보니 노스페이스를 입던 사람들도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온라인 창업 준비, 40대 가장 많다

온라인 판매업 창업 희망자 가운데 40대 초반의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지난달 20~15일까지 자사 온라인 판매 창업 교육 '이베이에듀' 수강생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40대 비중은 40%였으며 40대 초반(40~44세)은 전체 창업교육자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30대(37%)·20대(10%)·50대(11%)·60대 이상(2%) 순이었다.

현재 직업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6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사원(24.5%)·주부(5.8%)·무직(5.6%)·학생(0.6%) 순이었다. 회사원-자영업자 직종으로는 유통 및 판매업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IT 인터넷(16.6%)·경영(9.2%)·생산(7.6%)·영업(7.1%)·서비스(4.4%)·마케팅(3.0%) 직종 종사자로 조사됐다.

창업을 희망한 이유로는 44.9%가 "현재 수입이 적어서"라고 답했다. 이외 '현 직장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20.4%)·'현 직장(사업)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업하려고'(17.2%)·'전망이 좋은 판매 아이템이 있어서'(10.1%)·'여유 시간이 많아서'(2.7%)·'기타'(4.7%) 등으로 응답됐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편안하고 세련된 샌들로 멋 내세요"

스포티 스트랩·플랫폼 등 편한 착화감·실용성 선호



랜드로바 트렌디 아웃도어 샌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샌들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올 여름에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되는 '놈코어'와 '애슬레저' 트렌드의 영향으로 높은 굽의 샌들보다는 편안함에 포인트를 뒀다. 낮은 굽의 플랫 샌들이나 굽이 전체적으로 도톰한 청키 샌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행이 시작돼 올해 대중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포티 스트랩 샌들은 올 시즌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 여름 휴가 시즌 바캉스룩에도 활용이 가능해 실용성과 패셔너블함을 모두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아이템이다.

랜드로바는 트렌디 아웃도어 샌들을 출시했다. 사이드의 2중 웰트와 신규 몰드로 유니크하며 컬러풀한 웨빙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살렸다. 코르크를 사용해 가볍고 땀이 차지 않는다.

짧아지는 여름 옷에 편안함과 각선미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플랫폼 샌들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 특히 올해는 플랫폼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 샌들이 각광받고 있다.

르느와르의 컬러 코르크 플랫폼 샌들은 컬러 캔버스 원단 소재와 코르크가 믹스된 자재를 사용해 플랫폼 디자인에 포인트를 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숏 팬츠와 매치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미니멀 플랫 샌들은 고급스럽게 변신했다. 낮은 굽에 홀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시원하고 감각적인 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랜드로바의 트렌디 플랫 몰드는 화이트 아웃솔로 가벼우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강조한 반면 다른 디테일은 최소화 해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팬츠부터 스커트까지 어느 의상에도 편안하게 연출이 가능함은 물론 컵솔에 굴곡을 줘 착화감 역시 우수하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패션에 관심이 끊이지 않는 만큼 편안한 샌들로도 개성과 여성스러움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슈즈가 주목받고 있다"며 "원색의 톡톡 튀는 컬러보다는 뉴트럴(무채색) 컬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SPC, 창립 70주년 가족 초청행사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SPC 창립 70주년 가족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19일과 20일간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SPC그룹을 위해 힘써온 임직원와 협력사, 가맹점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총 50가족, 약 160여명을 평택 SPC그룹 최대의 제빵공장인 SPL에 초대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빵 시설과 식품안전 시설들을 견학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케이크 만들기 교실'도 진행했다.

또 다양한 SPC그룹 브랜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이벤트 부스에서 페이스페인팅·캐리커쳐·밀가루 놀이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븐없이 만드는 디저트 '백설 케익믹스'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은 전자레인지로 쉽고 간편하게 케익을 만들 수 있는 '백설 케익믹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설 케익믹스은 '초코케익믹스'와 '바닐라케익믹스' 2종으로 별도로 오븐을 예열하거나 온도를 맞출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서 4분만 조리하면 케익을 만들 수 있다. 케익이나 디저트의 인기가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이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할리스에프앤비 '디초콜릿커피앤드'론칭



할리스에프앤비(대표 신상철)는 할리스커피의 커피 노하우와 디초콜릿커피의 수제초콜릿 노하우를 접목시킨 커피전문점 '디초콜릿커피앤드'를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초콜릿커피앤드는 지난 3월 대치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6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연내 60개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초콜릿커피앤드는 하루 2~3잔 이상의 커피를 즐기는 고객 음용 패턴 변화에 발맞춰 프리미엄 커피를 보다 부담 없이 자주 즐길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합리적인 브랜드다. 주력 메뉴는 벨기에산 수제 초콜릿을 직접 녹여 만든 시그니처 음료인 리얼딥(Real Deep)라인과 고품질의 생초콜릿과 수제초콜릿 등이다.

신상철 할리스에프앤비 대표는 "고객 개개인의 커피 음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공간과 문화 중심의 커피 소비 외에 테이크아웃 중심의 합리적인 커피소비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고객 수요 창출을 위해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아코르그룹, 아태 최고 호텔 프로그램 선정

올 프레디 어워드 4개 석권 호텔업계 최고 서비스 인정 로열티 회원 보너스 포인트



아코르 그룹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Le Club Accorhotels)가 올해 발표된 프레디 어워드에서 아시아태평양 대양주 중동지역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호텔부문 '올해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아코르 그룹은 또 '160 유로 포인트를 받으세요'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베스트 프로모션'으로 뽑혔다.

아코르 그룹은 여행업계 회원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평가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프레디 어워드에서 모두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상용 고객에 대한 호텔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인정받게 되었다.

하비에 세디오 에스핀(Javier Cedillo-Espin)아코르 아시아태평양지역 로열티와 고객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은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 (Le Club Accorhotels)의 프레디 어워드 수상은 무엇보다도 호텔 고객들의 평가가 반영된 점에서 매우 뜻 깊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지난 수 년간 르 클럽아코르호텔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간 회원들의 의견을 로열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르 클럽아코르 호텔스는 제약없이 2500여 개 이상의 전 세계 아코르 호텔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호텔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소피텔(Sofitel), 풀만(Pullman), 엠갤러리(MGallery), 노보텔(Novotel), 스위트 노보텔(Suite Novotel), 머큐어(Mercure), 이비스(ibis), 이비스 스타일(ibis Styles), 아다지오(Adagio)·탈라사 씨&스파 (Thalassa Sea & Spa) 등 아코르 그룹의 계열 호텔에서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는 현재 전 세계에 18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회원 이벤트를 시행해 왔다. 회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600여 여행지에 있는 2800여 아코르 호텔과 리조트 휴양시설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아코르 그룹은 '르 클럽아코르호텔스'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들을 위한 보너스 포인트 프로모션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너스 포인트 프로모션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7개국 럭셔리 호텔에서부터 휴양 리조트까지 아코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양한 무료 혜택과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특히 플래티넘 등급 회원에게는 기존 포인트의 4배 보너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소피텔, 풀만, 엠갤러리, 더세벨,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머큐어, 이비스 호텔 등 500여개가 넘는 아코르 호텔이 참여하고 있다.

아코르 호텔의 로열티 프로그램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 회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참여 호텔에서 3배의 보너스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약·문의 www.accorhotels.com/leclub 또는 아코르 예약센터 00798-8521-2018.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세계 첫 단일공 로봇 골반장기탈출증 수술 성공

이대목동병원 이사라 교수



이사라(사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에 의한 골반장기탈출증 수술을 성공시켰다.

단일공 로봇수술이란 배꼽 부위를 약 2.5㎝ 정도로 절개해 그 구멍을 통해 로봇 기구를 넣어 수술을 하는 최첨단 수술법이다. 골반장기탈출증은 방광, 자궁, 직장과 같은 장기들이 질을 통해 골반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말하며 일명 '밑 빠진 병'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행 등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골반장기탈출증의 여러 가지 수술법 중 '천골고정술'은 골반 뼈에서 가장 튼튼한 천골 앞 종주인대에 골반 밖으로 나온 질의 끝부분(질 첨단부)을 고정시키는 수술법이다. 여러 부분에 봉합이 필요해 비뇨부인과 수술 중 고난이도 수술에 속하지만 환자들의 예후가 좋고 재발 위험이 낮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치료다.

이러한 천골고정술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가 세계 처음으로 단일공 로봇수술로 시행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이사라 교수는 각각 골반장기탈출증 제 3기 진단을 받고 입원한 김 모씨(69)와 이 모씨(66)에게 아전자궁절제술과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고 나서 'Y'자 합성그물망을 이용한 천골고정술을 단일공 로봇수술을 통해 시행했다. 두 환자는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골반장기탈출증의 재발과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사라 교수는 이 수술 기법을 내시경 수술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상태이다.

/최치선기자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 산업포장 수상



소형 공기청정기 전문제조업체 에어비타는 발명의 날을 맞아 이길순(사진) 대표가 산업포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포장상은 대통령 표창보다 한 단계 위의 상으로 국가 산업의 개발·발전에 이바지한 자 또는 직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이길순 대표는 반지하에서 답답한 공기 때문에 감기를 달고 사는 주변 지인의 자녀를 보고 안타까운 엄마의 심정으로 공기청정기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이 대표는 200만개 이상의 음이온을 방출하며 실내 각종 악취와 유해 세균, 바이러스 등을 최대 99.9%까지 제거 감소해주는 제품을 만들었다. 또 최근에는 독감바이러스(H5N1)를 99%까지 제거하는 시험 성적서까지 획득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변에 좀 더 많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타민을 선물할 수 있도록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은 별도의 필터 관리나 교체 필요 없이 간편한 물 세척만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24시간 내내 사용해도 한 달 전기요금은 100원 미만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강강술래 "황금연휴 알뜰외식 하세요"

서초·역삼·여의도점 한우·양념갈비 2+1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5월 마지막 황금연휴를 맞아 부담없이 가족이나 연인·친구와 함께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3~25일까지 서초와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왕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는 2+1 덤 증정 행사를 하루 종일 진행한다.

여행·캠핑·나들이를 떠나는 고객을 위해선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또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를 36% 할인된 6만원에 내놓았다.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도 반값인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유한킴벌리 "좋은순면과 사랑에 빠지세요"

서울재즈페스티벌서 체험행사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이 오는 23~25일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2015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이 페스티벌에서 유한킴벌리는 '자연에서 온 100% 순면커버, 좋은느낌 좋은순면'의 순면케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좋은순면' 이벤트는 'Fall in love with cotton, 좋은순면과 사랑에 빠지세요!'를 주제로 2015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메인 공연장인 MAY FOREST 내 '좋은느낌' 부스에서 진행된다. 행사 부스를 찾은 관객들에게는 '좋은느낌 좋은순면'만의 순면케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킷을 선물할 예정이다.

관객들은 좋은느낌 부스에 설치된 순면트리의 '순면플라워' 스크래치 카드 경품 이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쉬태그 인증샷이벤트'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좋은느낌 '순면남' 박서준의 이미지와 인증샷을 찍은 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좋은느낌순면남과함께'라고 업로드 하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복현명기자 hmbok@

블소, 올 겨울 북미·유럽 출시

<블레이드&소울>

가을 CBT 후 정식 서비스 공식채널 열어 정보 공개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PC 온라인게임 '블레이드 & 소울(이하 블소)'을 올해 북미와 유럽에 출시한다.

엔씨소프트의 북미 법인인 엔씨웨스트(대표 윤송이)는 지난 20일(현지 기준) 블소의 북미와 유럽 론칭 일정을 밝혔다. 올해 가을 비공개 테스트(CBT, Closed Beta Test)를 하고 겨울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 가지 언어로 출시한다.

존 번스 엔씨웨스트 게임 퍼블리싱 총괄 임원은 "블소는 북미와 유럽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온라인 게임 중 하나"라며 "블소를 통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시 발표와 함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공식 채널을 열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블소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북미와 유럽 서비스를 앞두고 21일(현지 기준)부터 블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도 시작한다. 이용자는 인터넷 게임 방송 서비스인 트위치 TV(http://www.twitch.tv/bladeandsoul)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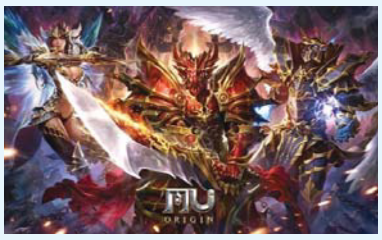


웹젠 '뮤 오리진' 흥행돌풍

모바일 게임 적수 없어

게임 개발업체 웹젠의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이 흥행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다.

웹젠의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이 출시 3주만에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21일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순위에 따르면 웹젠이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MMORPG '뮤 오리진'이 지난 20일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 출시 직후 매출 1위에 오른 티스토어와 더불어 게임이 출시된 앱스토어들에서 모두 매출순위 1위에 올랐다.

특히 '뮤 오리진'이 게임 흥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여겨졌던 게임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나 포털과 제휴 없이 자체 서비스만으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웹젠은 '뮤 오리진'의 흥행성공으로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국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게임성 높은 모바일게임 확보를 위한 접촉도 이미 시작했다.

한편 '뮤 오리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젠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식 카페에서는 이미지·동영상 등의 게임 정보와 간략한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기적의 사나이' 신영록 'FIFA 온라인 3' 등장



'기적의 사나이' 신영록이 그라운드를 다시 누빈다.

게임업체 넥슨은 온라인게임 'FIFA 온라인 3'에 특별 선수 캐릭터로 신영록 전 축구선수를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슨은 오는 25일까지 FIFA 온라인3에 접속한 모든 유저에게 신영록 선수를 지급한다. 또 특별 페이지와 응원 영상을 마련해 그의 후반전을 응원한다.

2011년 5월8일 국가대표 차세대 유망주이자 축구계의 별이었던 신영록 선수는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50일만에 0.3%의 생존율을 딛고 의식을 회복한 신영록 선수는 지금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의 성공적인 재활과 그라운드 복귀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게임 속 선수 신영록은 선수시절 다부진 체격과 트레이드마크인 장발, 머리띠 등 외형이 선수시절 모습과 똑같이 구현됐다. 장점인 몸싸움과 가속도가 우수한 중앙공격수(CF)로 제작됐다.

한편 넥슨은 신영록에게 3000만원의 재활치료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FIFA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TEAM 2002'와 신영록에게 2000만원을 기부한 이후 두 번째다.

/정문경기자 hm0108@

'라그나로크: 영웅의 길' 6차 용병 업데이트

모바일 콘텐츠 전문 기업 네오싸이언(대표 기타무라 요시노리)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 '라그나로크: 영웅의 길'(이하 영웅의 길)에서 6차 용병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6차 용병 업데이트를 통해 인간형 몬스터로 진화 가능한 초보자 노비스, 꽃핀 태권소녀, 복면 건슬링거 등 진화 포함 12종을 선보인다. 또한 각 용병들의 신규 스킬이 추가되며 자신의 투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담긴 투구 코스튬이 추가된다.

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먼저 오는 28일까지 황금상자에서 6차 용병 획득 확률이 대폭 상승되며, 자신의 투구를 바꾸는 등 신규 시스템을 활용한 모습을 스크린샷으로 담아 카페에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고급 게임아이템을 증정한다.

특히 낚싯대스타일 변경 후 카페에 스크린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루비 30개를 지급한다. 또한 몬스터 사냥 후 획득할 수 있는 클로버를 모으면 개수에 따라 포링, 엔젤링, S등급 용병 랜덤 상자 등 최고급 게임아이템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문경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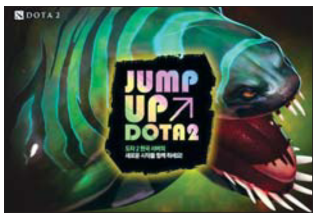
넥슨 '도타 2' 한국 서버 글로벌 확장 오픈

초보자 가이드 강화 오픈 기념 이벤트도

넥슨(대표 박지원)은 21일 정통 AOS(전략시뮬레이션) 장르 게임 '도타 2'의 한국 서버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초보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강화했다.

넥슨은 글로벌 서버 확장을 통해 전세계 도타 2 이용자들이 한국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의 분(分)당 골드 획득량, 경험치량, 적 처치 수 등 게임 내 활약상을 종합한 '매치메이킹 수치'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타 2 공식 홈페이지에는 초보자 가이드 페이지가 신설된다.



신규 페이지에는 자신과 맞는 영웅을 찾는 심리테스트, 영웅, 짐꾼, 아이템 활용법, 도타 2 플레이 방법을 쉽게 설명한 웹툰 '도타툰', 유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영웅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게임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설명한 '게임 가이드' 페이지도 새롭게 오픈했다.

또 한국 서버 글로벌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한다. 6월 17일까지 '스팀' 계정과 넥슨 계정을 연동한 신규 유저에게 '롯데상품권 1백만 원' '플레이스테이션4' '애플워치' '아이언맨 마크세븐' 피규어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을 제공한다. 응모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SSD하드디스크' '영화예매권' '넥슨캐시'를 선물한다.

또 6월 11일까지 넥슨 계정으로 한국 서버에서 특정 횟수 플레이하면 추첨을 통해 '인터내셔널5 기록서'를 구매할 수 있는 '넥슨캐시'와 기록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록서 점수' 아이템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이달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도타 2 공식 '서포터즈'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양성운기자





넷마블, 시티앤파이터 신규캐릭터 2종 공개

넷마블이 모바일 액션 RPG '시티앤파이터 for Kakao(이하 시티앤파이터)'의 '블레이즈'와 '링링' 등 캐릭터 2종의 신규 이미지와 영상을 21일 공개했다.

암흑과 혼돈의 힘을 지닌 파이터 '블레이즈'는 갈고리 글러브 형태의 너클을 주무기로 하는 강력한 근거리 공격형 캐릭터로 너클을 활용한 근접 공격 뿐아니라 암흑의 기운으로 적들을 끌어당겨 파괴시킬 수 있다.

귀여운 인간 소녀 로봇 '링링'은 쌍권총을 주무기로 하는 원거리 공격형 캐릭터로 에너지 광선과 포탄, 화염방사기 등의 중화기를 스킬로 쓴다. 그 외 중력탄을 형성해 적을 폭발시키거나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는 등 다채로운 스킬 공격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

5월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티앤파이터'는 고품질 2D 그래픽과 캐릭터별로 차별화된 스킬 콤보가 보여주는 극강의 타격감을 특징으로 하는 횡스크롤 모바일 액션 RPG다. 중국 최대의 퍼블리셔 텐센트가 직접 개발해 현지 출시 후 한 달 이상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돈·명예? 좋은 작품·캐릭터 원할 뿐

영화 '무뢰한' 김남길

'무뢰한'의 정재곤은 냉혈한 형사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만난 여자 김혜경에게서 비슷한 아픔을 발견한 그는 한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진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비정한 하드보일드 세계에서 사랑은 사치일 뿐이다. "나랑 같이 살면 안될까?"라며 아주 잠깐 진심을 드러내지만 이내 "그걸 믿나"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정재곤은 제목처럼 진정한 무뢰한이다.

김남길(34)이 '무뢰한'의 정재곤과 만나게 된 건 우연에 가까웠다. 처음 정재곤 역에 캐스팅된 이정재가 어깨 수술로 하차하게 되면서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배우 입장에서는



**어둡고 클래식한 분위기 끌려
전형적 형사 캐릭터 탈피 노력
전도연과 호흡, 긴장속 큰 배움**

자신 이전에 다른 배우를 캐스팅했던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 마뜩잖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남길은 오히려 선배인 이정재가 선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궁금증이 컸다. 시나리오를 읽고 난 뒤에는 "보기 드문 남자영화에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폭풍전야'처럼 어두운 영화라는 점"에 끌렸다.

정재곤을 연기하면서 김남길이 가장 신경 쓴 것은 "무엇이든 최대한 표현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할 때마다 자신의 어두움을 밑바닥부터 보여주기 위해 힘을 줬다면 이번에는 얼굴 근육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연기를 하려고 했다. 범죄자보다 더 악랄하게 묘사되는 전형적인 형사 캐릭터에서 탈피하고도 싶었다. 그래서 정재곤이 대하는 인물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영화에서 정재곤이 긴 여운을 남기는 순간은 바로 엔딩이다. 비정한 세상 속에서 무뢰한 같이 살아온 한 남자의 감정을 관객에게 그대로 전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김남길도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신이다.

"'폭풍전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마지막 대사로 감정을 전하는 거였죠. 배우 혼자 모든 감정을 관객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번에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랑, 미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으로 연기했는데 그중 정재곤의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 영화에 쓰인 것 같아요."

"연기 내공이 있는 배우와 같이 작업하면서 성장하는 스타일"이라는 김남길은 이번 영화에서 전도연, 박성웅, 곽도원 등과 호흡을 맞추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전도연과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내공에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속상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작품에 임했다. 그리고 지금은 5년 내에 전도연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는 "도연 누나도 나도 블랙 코미디를 좋아한다"며 "도연 누나와 다시 만나서 누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싶다"는 농담으로 전도연과의 재회를 기원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시작으로 '무뢰한'까지 온 김남길의 행보는 계속해서 영화로 이어진다. 류승룡, 수지와 함께 한 '도리화가'는 이미 촬영을 마쳤다. 현재는 '연가시'의 박정우 감독이 연출하는 '판도라'를 촬영 중이다. '무뢰한'으로 처음 칸영화제를 다녀왔지만 그는 "배우로서 달라진 건 크게 없다"고 말했다. "저는 돈이나 명예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좋은 작품에서 좋은 캐릭터를 연기하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죠. 영화를 찍는 것도 칸에 가기 위해 찍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작품과 캐릭터를 만나 열심히 연기할 겁니다."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star bag

연상 사업가와 열애



배우 **박효주**가 2세 연상 일반인과 열애 중이다.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박효주가 연상의 사업가와 6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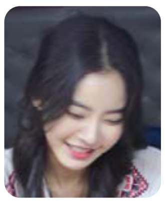
또한 "남자친구가 일반인인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풋풋한 사랑을 하고 있으니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럽 팬과 만난다



그룹 **보이프렌드**가 22일 핀란드 헬싱키를 시작으로 23일 러시아 모스크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이번 유럽 공연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월드투어의 일환이다.

간식 통 크게 쐈다



tvN 월화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에 '알바 여신' 황혜림 역으로 출연 중인 배우 **황승언**이 경기도 연천 촬영 현장에 떡볶이·튀김·어묵 등이 한가득 실린 간식차를 선물했다.

그는 "내 캐릭터를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 준 스태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中 예능 프로그램 출연



배우 **신소율**이 중국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한위싱동타이'에 출연했다고 소속사 가족액터스가 21일 밝혔다.

상해TV의 '한위싱동타이'는 시청자수 3억 명에 육박하는 한류 방송이다. 신소율은 최근 녹화에 참여해 특유의 상큼한 에너지로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1960년대 브라질로 떠날 준비 됐나요"

세르지오 멘데스 24일 서울 재즈 페스티벌로 내한
"한국 팬 보기 좋아… 함께 축제 분위기 즐겼으면"



'보사노바의 거장' 세르지오 멘데스(74·**왼쪽 사진**)가 한국 팬과 함께 음악 여행을 떠난다.

멘데스는 23~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제9회 서울재즈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약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멘데스는 24일 공연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한국 팬과 소통할 예정이다.

그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투어를 할 때마다 난 '음악적인 여행'을 하려고 한다"며 "무대 위에서 1960년대 브라질로 돌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 관객은 이미 내 노래를 잘 알고 있고 참여도 잘 한다. 이번 공연에서도 내 음악 여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멘데스는 이미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한국 관객의 '떼창'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관객은 최고다.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관객들이 내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서 놀랐다. 따라 부르면서 춤도 추고 즐기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물론 내가 '마스 퀘 나다(Mas Que Nada)'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지만, 한국 팬은 다른 곡을 연주해도 모두가 알고 있는 반응을 보여줬다. 새 앨범 '매직(Magic·**오른쪽**)' 수록곡도 연주할



예정이니 함께 여행을 즐길 준비를 해서 오면 좋겠다."

멘데스는 1961년 데뷔해 35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인 '살아있는 전설'이다. 특히 그는 '타임리스(Timeless)' 앨범부터 까마득한 후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만큼은 나날이 젊어지고 있다.

최신 앨범 '매직' 역시 미국의 윌아이엠과 존 레전드 브라질의 까를리뉴스 브라운, 세우 조르지, 아나 카롤리나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70대의 나이에도 그가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음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열정(Passion)'이다. 난 브라질 음악의 힘은 멜로디, 리듬, 하모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앨범은 특히 멜로디가 강한 곡들이 많다. 앨범 제목이 '매직'인 이유는 만남과 교류라는 마법 같은 일들을 통해 만들어진 앨범이기 때문이다. 사실 난 내 음악에 대해 설명을 더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공연은 그래서 참 좋다. 내 음악을 진실 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번에도 함께 음악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메이드 인 차이나' 6월 개봉

김기덕 감독 각본·제작
박기웅·한채아·임화영 주연

김기덕 감독이 각본·제작에 참여한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감독 김동후)가 오는 6월 개봉을 확정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산 장어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중국인 첸과 식약처 검사관 미의 충돌하는 욕망을 그린 작품이다. 박기웅, 한채아, 임화영이 주연을 맡았다.

박기웅은 진실에 목숨을 건 남자 첸 역을 맡아 남성미를 뽐냈다. 한채아는 진실을 숨겨야 사는 여자 미로 본격적인 스크린 연기에 도전한다. 신예 임화영은 첸과 미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돼주는 연변 출신 길림성 역으로 함께 했다.

김동후 감독은 "이 작품은 한국사회, 즉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영화"라며 "오염된 장어처럼 우리 사회도, 우리 자신도 오염된 것은 아닐지 적나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박기웅


한채아

김소현·조수향 "실제론 사이 좋아요"

'후아유-학교2015'서 악연

배우 김소현이 조수향을 위로했다.

김소현과 조수향은 KBS2 월화극 '후아유-학교2015'에서 악연인 고은별·강소영 역을 맡았다. 강소영은 이은비(김소현)가 고은별의 인생을 살기 전인 통영고에서 이은비를 왕따시킨 주범이다. 두 사람은 강남고에서 재회했고, 이번엔 강소영이 왕따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안성 드라마 세트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수향은 "김소현과 실제로는 장난치는 사이다. 막상 편집된 영상을 보면 내가 봐도 강소영이 얄밉다"고 촬영 비화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소현은 "이은비가 강소영에게 반격할 때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그래도 조수향을 너무 욕하지 말아 달라"고 조수향을 위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소현


조수향

'후아유-학교2015'는 학교물에 미스터리, 청춘 멜로를 더한 복합 장르다. 김소현은 극의 중심에서 1인2역까지 소화하며 열연 중이다.

그는 "가장 힘든 건 16부작까지 감정선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초반에는 감독에게 의지했는데 이제는 언니, 오빠들과 친해지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 없이 감정의 흐름을 타게 된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후아유-학교2015'는 시청률 3.8%(닐슨코리아·전국 기준)로 시작해 8회 현재 6.7%로 매회 기록을 경신하며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빅토리아 '내 남자친구…' 中 리메이크작 출연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빅토리아(**사진**)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의 중국 리메이크 영화에 출연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중국 톱스타 린리후이, 펑 사오펑 등과 함께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리메이크작에 캐스팅됐다.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은 1997년 개봉한 줄리아 로버츠, 카메론 디아즈, 더모트 멀로니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를 리메이크하는 작품이다. '블러드 브라더'를 연출한 알렉시스 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소니픽쳐스와 차이나필름이 공동 제작한다.

빅토리아가 맡는 배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화는 오는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더 섹시해졌다… 박재범 신곡 '몸매' 발표

가수 박재범(**사진**)이 한층 섹시해진 모습으로 컴백했다.

박재범은 22일 오전 0시 신곡 '몸매(MOMMAE)'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신곡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규 2집 '에볼루션(EVOLUTION)'에 이어 약 8개월 만에 발매하는 것으로 같은 레이블 AOMG 소속인 어글리덕(Ugly Duck)과 그레이(GRAY)가 각각 피처링과 프로듀싱을 맡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트랜디한 래칫 장르의 '몸매'는 박재범 특유의 랩과 보컬을 넘나들며 선보이는 직설적인 표현과 신선한 묘사가 매력적으로 녹아들었다. 또 어글리덕의 개성 있는 톤과 플로우, 재치 넘치는 가사가 조화롭게 곡의 균형을 맞췄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한편 이달 초 아이튠즈로만 발매됐던 해외 싱글 '섹스 트립(Sex Trip)'도 함께 발표됐다.

/김지민기자




우리 시대의 부모님에게
가슴 가득, 눈부신 감동을!
명자 양금석
동탁 최주봉
내 생애 가장 찬란했던 나의...
악극
봄날은 간다~
단장 윤문식
동탁 정승호
2015.5.1(금)~6.21(일) 디큐브아트센터
양금석 최주봉 정승호 윤문식 최선자 이윤표 김장섭
최정연 전상진 곽인호 심태선 김선아 정종훈 함태영 조성범 김주승 고혜란 채시현 정경진 도레미 권민수 이봄이 서재홍 김행운 이윤수 김윤선 권소랑 박경진 양성령
예술감독 김영수 이건왕 프로듀서 신춘수 임동균 연출 김덕남 극작 김태수 안무 오재익 음악감독 박주현 무대 디자인 서숙진 조명 디자인 공홍표 음향 디자인 권도경 의상 디자인 조문수 소품 디자인 조윤형 분장 디자인 윤경남 기술감독 김미경 무대감독 구준호 제작감독 이승진
주최 SBS 협찬 신한캐피탈 후원 신한금융그룹 TV조선 제작 ShowPLAY 홍보마케팅 공연문의 오픈리뷰 1588-5212 티켓예매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예스24, 옥션티켓

TV 주말 하이라이트

신디는 ‘1박2일’을 살릴 수 있을까?

◆ KBS2 ‘프로듀사’ 금요일 오후 9시15분



3화 ‘본의 아니게 닭 대신 꿩’ 편이 방송된다. KBS 예능국 동네북으로 찍힌 백승찬(김수현)은 라준모(차태현)와 탁예진(공효진)의 동거를 목격하고 혼란에 빠진다. 탁예진은 백승찬의 외제차 수리비 83만원을 어떻게 갚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한편 ‘1박2일’팀에 합류한 백승찬은 프로그램 새 콘셉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톱 여가수 신디(아이유) 섭외를 요청한다. 신디는 비상 사태에 빠진 ‘1박2일’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수잔의 엘리트 친구 ‘총 집합’

◆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토요일 오후 6시25분

수잔의 엘리트 친구들이 등장한다. 탁구·농구·배드민턴 국가 대표 친구들이 출연해 ‘내친구집’ 멤버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한다. 일곱 멤버는 아등바등 국가 대표 앞에서 자존심 찾기에 나선다. 또 네팔 코다리 학교에 있는 꼬마 천사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수잔과 리틀 수잔이 만난 가운데 꼬마 천사들 앞에서 펼쳐진 삼촌들의 재롱 잔치가 관전포인트다.



◆ KBS1 ‘다큐 공감’ 토요일 오후 7시10분



‘아들 힘내’ 편에선 해외 창업에 성공한 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행복지수 세계1위 덴마크 최초 호떡 장수 희욱 씨(31), 중국 상해에서 셀프 영상 진동벨 사업을 시작한 진현과 동혁(27), 인도네시아 모바일 서베이 사업을 시작한 성영 씨(28), 그들의 곁을 묵묵하게 지켜주는 엄마들을 확인할 수 있다.

◆ JTBC ‘김제동의 톡투유’ 일요일 오후 9시45분



국내 최고의 강사 최진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대표와 여성 듀오 옥상달빛이 출연한다. 4회 방송 주제는 ‘선택’ (그래, 결정 (못)했어!)다. 청중들의 다양한 고민이 쏟아진 가운데 김제동·최진기·송길영, 세 남자의 공감할 수 있는 고민 해결법이 공개된다.

◆ tvN ‘구여친클럽’ 금요일 오후 8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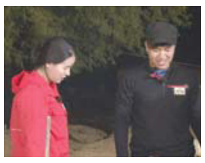
방명수(변요한)가 구여친들에게 제대로 괴롭힘을 당한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데 반대하던 여친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난다. 특히 방명수는 위기에 처한 구여친 장화영(이윤지)을 옹호하기 위해 김수진(송지효)과 연인이라고 거짓 선언을 하며 김수진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새 멤버 황광희의 환영식 최종 미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무게 245톤, 현존하는 초대형 여객기 A380에 끌기에 도전한다. 실패하면 제작진이 포상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부담도 느낀다. 과연 멤버들은 A380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 SBS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금요일 오후 10시



배우 임지연과 가수 김종민의 핑크빛 기류가 포착된다. 임지연은 류담과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김종민을 꼽는다. 서인국·손호준·박형식을 제치고 임지연을 사로잡은 김종민의 매력이 공개된다.

◆ KBS2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토요일 오후 11시35분



윤종신·조정치·최현석·정창욱·정태호·박성광이 도시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최현석·정창욱은 셰프 복장이 아닌 밀짚 모자와 멜빵 바지를 입어 변신을 예고했다. 도시 남자 여섯 명의 리얼 농사 도전기가 처음 공개된다. /정리=전효진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EBS1	JTBC
23일 (토)	13시 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15시 00 2015 K리그 클래식 17시 10 동물의 왕국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글로벌 경제, 아시아 시대를 열다 21시 40 징비록 (29회) 22시 3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0시 00 콘서트 7080	12시 30 개그 콘서트 (재) 14시 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5시 45 프로듀사 (1회) (재)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27회) 21시 15 프로듀사 (4회) 22시 35 연예가 중계 23시 45 인간의 조건 3-도시농부 (1회) 0시 55 오렌지 마말레이드 (3회) (재)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3시 30 맨도롱 또똣 (재) 15시 50 쇼! 음악중심 17시 00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29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11회) 22시 00 여왕의 꽃 (21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12시 10 풍문으로 들었소 (재) 14시 30 런닝맨 (재) 15시 40 아빠를 부탁해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1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0시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 1~5) (재) 14시 30 나눔 0700 (245회)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50 장학퀴즈 (954회) 18시 40 한국기행(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스타워즈 : 제국의 희망>	13시 20 유자식상팔자 (102회) (재) 14시 4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45회) 16시 05 냉장고를 부탁해 (27·22회) (재) 17시 2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44회) 18시 40 순정에 반하다 (15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6회) 21시 45 순정에 반하다 (14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5회) 0시 4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3회)

	KBS1	KBS2	MBC	SBS	EBS1	JTBC
24일 (일)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4시 10 다큐 공감 (재) 15시 20 징비록 (28회) (재) 16시 10 징비록 (29회) (재) 17시 40 열린 음악회 19시 10 도전 골든벨 21시 40 징비록 (28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3시 10 프로듀사 (4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2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28회) 21시 15 개그 콘서트 (797회) 22시 55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스타일 포 유 (8회) 0시 55 이웃집 찰스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11회) (재) 14시 25 화정 (12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12회) 22시 00 여왕의 꽃 (22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경찰청 사람들 2015 (재)	12시 10 2015 SK텔레콤 오픈 FR, 인천생중계 13시 10 썸남썸녀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2회) 23시 10 부처님 오신날 특집 SBS 스페셜 0시 10 불타는 청춘 (재)	11시 40 리얼극장 (재)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슈퍼맨>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완득이> 0시 50 구애의 춤꾼, 잭슨천인조	13시 20 썰전 스페셜 (116회) 14시 40 비정상회담 (46회) (재) 15시 45 2015 FIG 리듬체조 타슈켄트 월드컵 17시 15 엄마가 보고있다 (4회) (재) 19시 00 유자식상팔자 (93회) 20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27회) (재)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4회) 23시 00 닥터의 승부 (176회) 0시 20 마녀사냥 (93회) (재)

흥분한 마야 3회 9실점… "삼성 트라우마 생길판"

스포츠 주간 해프닝

6-25 충격패 빌미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투수 유네스키 마야가 '삼성 트라우마'에 빠졌다.

마야는 지난 20일 KBO리그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에 선발 등판, 최악의 피칭으로 6-25라는 충격적인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쿠바 출신으로 남미 특유의 다혈질 기질이 있는 마야는 기분이 좋을 때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힘을 더 내는 반면 위기에 몰리면 흥분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날 삼성전에서도 마야는 흥분했다. 2회까지 무실점 역투를 펼치던 그는 3회 선두타자 박해민을 중전안타로 내보낸 뒤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견제로 박해민을 잡아낼 수 있었지만, 1루수 김재환이 글러브에서 공을 신속하게 빼내지 못해 2루로 달리던 박해민을 잡지 못했다. 이때부터 흥분한 마야는 삼성 타선에 난타를 당했고, 수비 실책까지 더해 3회에만 9실점했다.


3회에만 8점을 내주며 강판당하고 있는 마야.


19일 사직구장에 출몰한 고양이.


타석에 들어선 한화 마무리 권혁.

삼성과의 악연은 이전에도 있었다. 2일 대구 삼성전에서 마야는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불펜이 무너지면서 3-5로 역전패해 승리를 날렸다. 특히 두산 불펜의 주축 김강률이 이날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고 실려나온 악몽이 있다.

사직구장 '행운의 고양이' 출몰

1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2-0으로 KIA가 앞서가던 6회초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KIA 김민우 타석 때 갑자기 경기가 중단됐다.

백네트 쪽에서 갈색 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그라운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백네트에서 1루 익사이팅존 쪽으로 유유히 활보했다. 1루 심판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뛰어갔지만, 이 고양이는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20~30초 가량 그라운드를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다행히 고양이가 스스로 싫증을 느낀 듯 펜스 쪽으로 향해 1m가 훨씬 넘는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관중석으로 사라졌다.

행운의 고양이였을까. 0-3으로 뒤지던 롯데는 7회말 황재균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3-3 동점을 만들었고, 8회말 아두치의 3점 홈런이 터지며 KIA에 6-3으로 역전승했다.

마무리 권혁 타석 깜짝등장

17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이날 한화는 0-6으로 뒤지던 3회말부터 착실히 점수를 뽑아 7회 4-7까지 따라잡았다. 8회에는 1사 2루에서 이용규의 번트 안타로 5-6까지 쫓아갔다. 결국 9회말 선두타자 김경언의 극적인 동점홈런으로 6-6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 권용관의 안타, 허도환의 희생번트, 강경학이 내야안타로 기회를 이어갔다. 9번타자 송주호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자 넥센 벤치는 1번 이용규를 고의사구로 출루시켜 만루를 만들었다. 다음 타자가 9회초 마운드에 올랐던 권혁이기 때문이다.

한화는 지명타자 최진행을 9회초 수비에서 좌익수로 투입하면서 야수를 모두 소진했다. 투수 권혁이 대타 이종환을 대신해 2번 타순에 들어서야 했다. 권혁은 넥센 마무리 손승락을 상대로 파울 타구 1개를 쳐내며 풀카운트 승부를 펼친 끝에 삼진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한화는 연장 10회말 7-6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오늘 왼쪽어깨 관절경 수술

최악의 경우 선수생명 끝날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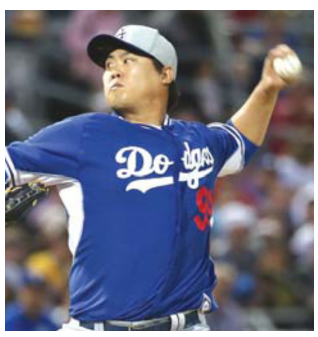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22일(한국시간) 왼쪽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는다.

다저스 구단은 21일 "류현진의 어깨 상태를 점검해 온 구단 주치의 닐 엘라트레체 박사가 수술을 집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을 접게 됐다.

관절경 수술은 환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관을 삽입해 환부 안쪽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서 나타나지 않은 어깨의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어깨 부상 상태가 생각보다 가벼우면 연골 일부를 살짝 깎아내는 등 '청소'(클린업)로 수술을 마칠 수 있다. 이 수술을 하면 보통 6개월 후 캐치볼을 시작해 내년이면 마운드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어깨 연골이 찢어졌거나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겼다면 선수 생명을 건 수술이 될 수 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과 달리 어깨 수술은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경진 선수촌병원 재활원장은 "어깨 수술은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나서 쓰는 마지막 카드"라며 "어깨 수술을 한 투수 대부분이 '되도록 수술을 피하라'고 조언할만큼 어깨 수술 후 재활은 혹독하고 길다"고 말했다.



어깨 부상은 무리한 회전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 힘줄이 손상되는 회전근 파열, 어깨 연골 등에 염증이 생기는 부상 등이 투수가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이다.

/김민준기자

강정호 5타수 1안타… 추신수 침묵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강정호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6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자 5번 타자로는 5경기 연속으로 나선 강정호는 4경기 연속 안타를 뽑아냈다. 시즌 타율은 0.320에서 0.313(80타수 25안타)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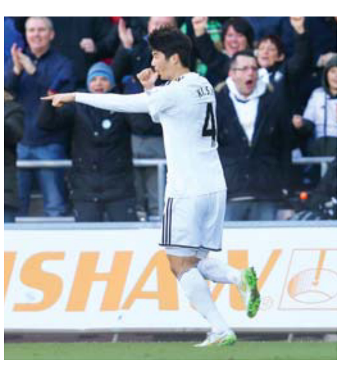
강정호는 1회말 첫 타석에서 행운의 안타를 얻었다. 2사 2루 상황에서 미네소타 선발 마이크 펠프리의 4구째 싱커를 공략해 원바운드로 투수키를 넘기며 내야 안타를 쳤다. 이후 타석은 3루수 땅볼, 중견수 뜬공 등으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연장 접전 끝에 3-4로 무릎을 꿇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0에서 0.233(133타수 31안타)으로 하락했다. 텍사스가 2-1로 승리했다.

/김민준기자

기성용, 스완지시티 '올해의 선수'



유럽 무대에서 2014-2015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기성용(26·스완지시티·사진)이 팀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스완지시티는 20일(현지시간) 올해의 선수를 뽑는 팬들의 투표에서 기성용이 최다득표를 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스완지시티로 복귀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웠다. 스완지시티도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최다 승점을 경신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기성용에 이어 골키퍼 우카시 파비안스키가 2위를 차지했고, 주장인 애슐리 윌리엄스가 3위에 올랐다.

기성용은 최근 오른쪽 무릎 관절경 수술로 뼛조각을 빼내는 간단한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쳤다.

한편 스완지시티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올해의 선수상은 골키퍼 파비안스키가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남태희 폭행' 에스토야노프, 6경기 출전정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남태희(레퀴야)를 폭행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파비안 에스토야노프(알 나스르)에게 6경기 출전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알 나스르는 21일 "에스토야노프가 AFC로부터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1만 달러(약 1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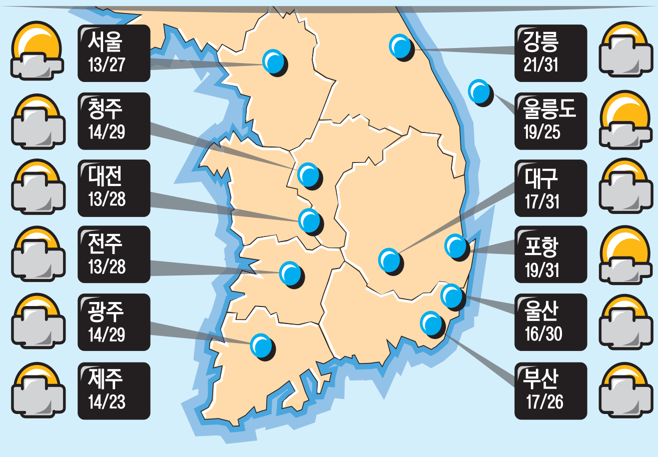
에스토야노프는 지난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퀴야와 알 나스르의 2015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남태희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가격했다. 남태희의 활약으로 팀이 1-3으로 패배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김민준기자

날씨

5/22 금 일출시각 05:18 일몰시각 19: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1	2		9
								6
	7		2	4				
	8	3	5					
				9				
					4	5	8	
				5	3		9	
2								
8		1	7	6				5

7			5				9	
		6				7		3
				1			8	
					3	6	7	
			9		1			
	7	5	2					
	3			6				
6		7				4		
	8				5			1

스도쿠 정답

3	5	4	6	8	1	2	7	9
1	2	8	9	3	7	4	5	6
6	7	9	2	4	5	8	3	1
4	8	3	5	2	6	9	1	7
5	1	7	3	9	8	6	2	4
9	6	2	1	7	4	5	8	3
7	4	6	8	5	3	1	9	2
2	3	5	4	1	9	7	6	8
8	9	1	7	6	2	3	4	5

7	2	8	5	3	4	1	9	6
1	5	6	8	9	2	7	4	3
9	4	3	6	1	7	2	8	5
8	9	1	4	5	3	6	7	2
4	6	2	9	7	1	5	3	8
3	7	5	2	8	6	9	1	4
5	3	4	1	6	9	8	2	7
6	1	7	3	2	8	4	5	9
2	8	9	7	4	5	3	6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이재용폰' 40일 만에 1000만대… S5보다 보름 더뎌

소비자 119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전략스마트폰인 갤럭시S6 및 갤럭시S6엣지가 출하량 1000만대를 넘어섰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9일 삼성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갤럭시S6 시리즈는 지난 4월 10일 처음 출시됐다.

삼성측은 그러나 1000만대 돌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그 시점이 19일이라면 갤럭시S6 시리즈가 1000만대 출하를 달성한 것은 출시한 지 꼭 40일만이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4나 갤럭시S5에 비해서도 13~15일 떨어지는 기록이다.

갤럭시S 시리즈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때 마다 1000만대 판매 시점이 단축돼 왔다. 갤럭시S와 갤럭시S2는 1000만대 판매까지 각각 7개월, 5개월이 걸렸다.



삼성전자 신종균 IM부문 사장. 삼성전자는 지난달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갤럭시S6가) 갤럭시S5 보다 잘 팔린다"고 밝혔지만 1000만대 출하 시점 등 구체적인 판매현황은 비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갤럭시S4는 출시한 지 27일만에, 갤럭시S5는 이보다 더 빠른 25일만에 각각 1000만대 출하를 돌파했다.

미국 모바일전문 사이트인 폰아레나는 "1000만대 돌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삼성으로서는 이 고지를 넘자말자 누설하고픈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돌파시점이 최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갤럭시S6 시리즈의 1000만대 출하 돌파 시점이 19일 즈음이라면 이는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갤럭시S5 등 전작들이 애플 아이폰, 샤오미폰 등에 밀리고 영업실적 하락 등 코너에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회심작으로 내놓은 작품이 갤럭시S6 시리즈인데, 이마저도 판매부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략구사에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갤럭시S6와 엣지 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깊숙히 관여하면서 '이재용폰'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만큼 판매부진이 이어지면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구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민규기자 unh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업이 안풀려 답답합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삼가시길

룰스 남자 72년 1월 17일 음력 19시경

Q 선생님! 6년 전에도 선생님께 의뢰해서 답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 하는 가게가 언제쯤 나가나 상담을 했고 답변해주신 달에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동업으로 다른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 1년 정도는 많은 수익이 발생 했는데 그 후로 3년 정도는 적자는 아니지만 2명이 나눠가지고 가는 금액이 점점 줄어 지난 해 초에 가게를 동업자에게 넘기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와 1년째 아는 형님 가게를 돕고 있습니다. 사업운. 재물 운은 있는지요? 10년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답답합니다.

A 사주팔자 속에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길흉화복이 운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러 생활에 기본이 되는 성격과 환경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 할 때도 자신이 타고난 끼와 적성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공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얘기이지만 당분간 사업 운이 하향 길로 가고 있으므로 2017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정규적인 봉급을 받는 직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굳이 장사를 한다면 숨고르기를 한 후 다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패가 운에서 나타나므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운을 알고 사회생활에 대응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용이 물을 만나 만사형통의 기상'이지만 끝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날아 하늘까지 가려는 생각을 접고 작은 현실에 만족을 하면 그것도 성공으로 일컬을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壬水日干)이 을목(乙木)상관(傷官: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말;口)에 무토(戊土) 편관(偏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직업)으로 역행(逆行)하는 기운을 극제(剋制)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재주가 넘쳐나고 도량이 넓어서 일을 크게 벌이지만 속단하고 말(言)로써 스스로 후회할일을 만듭니다. 두드러져 보이려는 성향을 접고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실속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좀 더 일들이 잘 풀리리라고 봅니다. 운의 기운이 절대적이지만 시간을 잘 지키고 양보하는 미덕과 자기분야의 실력이 있다면 운 또한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2일 (음 4월 5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하늘도 귀하의 의지를 알고 돕습니다. **60년생** 최선을 다하세요. **72년생**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습니다. **84년생** 덕이 멀리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소: **49년생** 혼자의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1년생** 동기나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73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85년생** 취업이 용이할 것입니다.

호랑이: **50년생**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에 조심하세요. **62년생**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4년생** 과욕을 삼가하세요. **86년생** 적성과 급여 사이에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토끼: **51년생** 소신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63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유행성 독감을 주의하세요.

용: **52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64년생** 물건을 잊었으므로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76년생** 운전에 주의하세요. **88년생** 만사형통한 하루 입니다.

뱀: **53년생** 늘 조심성 있게 나아가세요. **65년생** 중심을 잡지 못해 마음이 심란합니다. **77년생** 상하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89년생** 음과 양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말: **54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 보세요. **66년생**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78년생**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90년생** 항상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양: **55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67년생**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79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겠습니다. **91년생** 인내심과 끈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 **56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68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0년생** 이루어지는 만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92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닭: **57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9년생**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겠습니다. **81년생** 도움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93년생** 쉽사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것입니다.

개: **58년생**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70년생** 분명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94년생** 큰 지출이 예상됩니다.

돼지: **59년생**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71년생** 능력은 짧고 보잘 것 없는데 바라는 것은 원대합니다. **83년생** 기다림이 현명할 것 입니다. **95년생** 운이 상승합니다.

삼성가의 면세점 혈투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오는 6~7월께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을 놓고 유통 재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재벌가가 있습니다. 범 삼성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시내면세점엔 이들 삼성가를 비롯해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등 재벌가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삼성가가 유독 주목되는 이유는 사촌끼리의 경쟁인데 더해 대기업에 배정된 두곳의 시내 면세점 모두를 삼성가에 몰아주기엔 정부 부담이 커보인다는 점입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지만 둘 중 한 곳은 탈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부진 대표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용산 아이파크몰에 면세점 후보지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용산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을 비롯해 한국 문화유산의 전당인 국립중앙박물관, 6·25와 베트남 전쟁 등 대한민국의 전쟁 역사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전쟁기념관,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 축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가진 곳입니다. 면세점이 들어서면 침체된 전자상가와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신의 한수'로 평가받을만한 입지입니다.

용산에 못지 않은 입지를 가진 또 하나의 면세점 후보지가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면세점 후보지로 확정한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명품관)입니다.

신세계 본점은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가 된 쇼핑지 명동, 한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국내 백화점 1호인 본점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관광객을 끌어 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보 관광객들이 늘면서 '명동-신세계면세점-남대문시장-남산'으로 이어지는 올래길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평가기준은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입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경영능력,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평가에서 우위를 가리기 힘듭니다. 남은 평가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등입니다만 이마저도 평가가 힘들어 보입니다.

호텔신라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이나 상생협력 노력 등이 크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신세계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은 주범(이마트)으로 낙인 찍힌 기업입니다.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은 신세계 본점 면세점 입점시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평가단을 꾸려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삼성가의 막후 로비에서 관세청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생활유통부장

8월에 '괭이갈매기족' 되는 서부발전 직원들



기자 수첩
박 상 길
<산업부 기자>

공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괭이갈매기족'이 늘고 있다. 괭이갈매기는 이른 봄 알을 낳기 위해 섬으로 옮겼다가 부화 이후엔 해변으로 다시 옮겨 '두 집 살림'을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공기업 직원들의 애환과 딱 들어맞아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오는 8월 말 충남 태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서부발전은 앞서 2011년 한전부지에서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건물로 둥지를 옮긴 뒤 다시 충남 태안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번 이전으로 본사 직원 200명이 태안으로 내려간다.

그 동안은 본사를 이전했어도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크진 않았지만 신(新) 본사 위치가 기존 공기업처럼 혁신도시가 아닌 허허벌판인 '군'으로 이전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아졌다.

물론 태안에는 서부발전의 화력발전본부 등 본사 이외에 발전소 직원 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이전되는 곳에는 주변 입지와 교통편이 좋지 않다. 복지나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전언이다.

여기에 미혼인 직원들은 결혼 걱정, 기혼 직원들은 자녀 교육에 따른 두 집 살림 걱정이 겹쳐 한숨이 늘고 있다.

이는 비단 서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가족동반 이주가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직원의 이탈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회사의 중심축이다. 이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근무하면서 느끼게 되는 애로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탈 가속화와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 점을 명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실 운영, 거주환경 개선, 교통망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즐거운 직장을 만들길 바란다.

| 반론보도문 | "경찰,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관련

본지는 2015년 4월 9일 및 10일자 '신세계의 메트로신문 강탈'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사건현장에 도착한 남대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일반시민에게 붙잡힌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현행범을 관내 대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풀어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여러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사건은 무료로 배포하는 메트로 신문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동 신문 배포자 간에 시비가 된 폭행사건으로 양측에게 파출소 동행을 요구했지만 양측이 이를 거절했고, 당사자 간 처벌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으로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사건 용의자를 임의로 풀어준 사건이 아니며, 추후 이의가 있으면 고소절차가 있다고 알려준 사건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

■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병선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 박필환

■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 이황진 ▷대응구조과장 김용진 ▷119종합상황실장 김태한 ▷서부소방서장 황정성 ▷북부소방서장 이강동 ▷수성소방서장 정병웅

부고

▲윤태식씨 별세, 오명수(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장)씨 빙부상=21일 별세,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산 장례식장 7호, 발인 23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벽제승화원), 031-923-7000

▲강채희씨 별세,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씨 시부상=20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053)560-9552

▲이호주씨 별세, 이용현 용우 승주 은아씨 부친상, 김득근(삼성전자 상무) 김창기씨 빙부상= 21일 오전 1시 40분, 안암동 고대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3일 오전 7시

기사제보=02)721-9861

Saenuri Party "Lowers the Price of Mobile Phones"

Saenuri Party is taking further actions to save money of mobile phone users. They are not only lowering the rate plan fees, but also the price mobile phones as well. Bringing changes to the overpriced mobile phone market and specializing functions of specific models which get rid of unnecessary functions for customers' greater satisfaction. The Chairman of Policy, Won Yoo Cheol, stated that overpriced mobile ph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t a better price because of Mobile phone distribution reform law, it is not enough to satisfy the consumers standard. Also, he stated that the overall functions and quality of the phone should be improved, but commercialized at a better price just like other countries. In this way the consumers can choose what they want to buy. He added that because the price of the mobile phone has much to do with the phone rate that consumers have to pay, they are asking them to wait and see the positive outcome in the near future as they strive to change the current mobile phone policy. The Party Policy Committee has also agreed to the diversification of mobile phones to improve the overpriced mobile phone marke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새누리당 "단말기도 가격 내려야"



새누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철(사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역시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현 단말기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선 단말기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증권 절세 HERO 3종사

올해 1,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124.8만원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올해 400만원 저축하면?
내년 **52.8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IRP(개인퇴직연금)

올해 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9.6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소득공제장기펀드

올해 6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2.4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농특세 고려)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5.4%**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3호(2015년 04월 07일~2016년 04월 05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펀드가입 전(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현대증권